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

26일~3월 1일 나흘간

음악회·전시회·탐조투어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 진행

순천시가 흑두루미의 날(2월 28일)을 맞아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2022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순천시 시조인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2월 28일을 흑두루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순천시가 주최하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국제두루미재단,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동아시아사람사지지역센터가 후원한다.

올해 기념행사는 26일 오후 3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제2회 순천만 흑두루미 생명 평화 음악회를 시작으로 막을 연다.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순천만 흑두루미 릴레이 탐조 투어를 비롯해 28일 오후 3시 '겨문 두루미의 고백' 공연,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 행사인 제2회 순천만 흑두루미 생명 평화 음악회는 '자연과 생명에게 안부를 묻다'를 주제로 박성훈 밴드가 함께 한다.

음악회 이야기 손님으로 순천과 서산 흑두루미 지킴이와 순천 엽동저수지 두꺼비 지킴이를 모셔



순천시 흑두루미 국제사진 공모전 대상작, 유형전의 '순천만 갯벌위의 환상'.

흑두루미에서 습지생명들로 이야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일까지 흑두루미 희망 메시지를 접수 받아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해 28일 순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사전 예약)·비대면(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경 없이 하늘길을 따라 남

북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흑두루미는 평화의 메신저"라며 "흑두루미 보호를 넘어 생명과 자연,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생존 개체수는 1만6000~1만8000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며, 순천만에서 매년 3400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연장

감면요율도 80%로 상향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감면 요율도 80%로 상향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120개소에 대해 사용료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 대부료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 기

간을 연장받거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50%만 감면받는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로 5억 3000여만원을 감면했다. 올해도 약 4억 2000만원을 추가 감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을 확대 연장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4명 모집

주 5일 근무...25일까지 신청

곡성군이 수질 보전을 위해 지방하천 환경지킴이를 모집한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는 하천 쓰레기 수거,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계도 등 수질 보전활동을 담당하며, 활동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평일 4일, 주말 1일) 근무한다.

보수는 일반(식비 및 교통비 등) 1만3000원과 임금 7만3400원 등 하루 8만6400원이다. 주 5일 근무 시 일급이 지급되는 1일의 유급 휴무가 주어진다.

응시자격은 21일 기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운전면허와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 피해자, 위기 청소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지원자 중 50% 우선 선발한다.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면접 시 가점이 부여된다.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했거나 중위소득 65%를 초과한 경우, 2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곡성군 환경축산과(곡성읍 군청로 50)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고흥군, 청년 취·창업 교육비 지원 확대

고흥군은 '지역고교 졸업자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고흥군은 지역 고등학교 진학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취·창업에 위한 전문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이 대상이었던 지원 자격을 올해부터는 대학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하 지역 청년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고 360만원으로 전문교육

비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취·창업을 위한 전문교육비 지원으로 컴퓨터, 드론, 중장비, 미용,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모든 분야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형 기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가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청년 취·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보성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마무리

보성군이 한 해 영농설계를 위한 첫 걸음인 농업인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농업인실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터넷 플랫폼(네이버 밴드, 유튜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서면교육을 병행해 추진했으며 지역 농업인 5174명이 참여했다.

교육과목은 보성군 특화작목인 토마토, 딸기, 키위, 한우 등 새로운 과정이 신설됐으며, 이상기온에 따른 병농사, 고추 재배, 감자 바이러스 예방 기술, 친환경 축산 등 전년도 영농평가 및 주요 작목 영농신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특히 스마트 농업 등 과학영농시설에 관한 교육에서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박오 씨는 "평소 문제가 되었던 영농기술을 영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고, 다양한 과정들을 집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읍·면별 특성에 맞춰 재배되고 있는 다양한 소득 작목 등 품목별 과정을 확대·신설할 계획이니 지역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 산림일자리 발대식...칩덩굴 제거·등산로 정비

8억 5000만원 들여 47명 참여

산림 병해충 방제·예찰 활동도

구례군에 따르면 산림자원 보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등과 더불어 고용 창출을 위해 총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칩덩굴 제거 등의 산림사업을 추진한다.

총 47명으로 구성된 산림 일자리는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복지 일자리, 산림 보호 일자리로 나눠져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숲 정비와 도시녹지, 등산로 정비, 산림 병해충 방제와 예찰 활동에 나선다.

우선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칩덩굴 20% 제거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태풍, 산사태 등 예기치 않은 산림피해 발생 시 복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의 전문 강사의 임업 기계 활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구례군 산림 일자리는 주로 생활권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전



구례군은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을 마무리하고 지난 22일 K-산림안전 정착을 위한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례군 제공>

장비 착용과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대의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조림과 숲 가꾸기 실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며 "품질 향상과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

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일자리는 구례가 보유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